

제 1 교 시



2013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인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육 군 사 관 학 교

권
말

1. <보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카페인 과잉 섭취 예방’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가) 신문 보도 자료

최근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들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에 카페인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잉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식품별 카페인 함유량과 1일 적정 섭취량(체중 1kg당 25mg 이하)을 조사, 발표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는 고카페인 식품에 카페인 함유량과 카페인 과잉 섭취를 경계하는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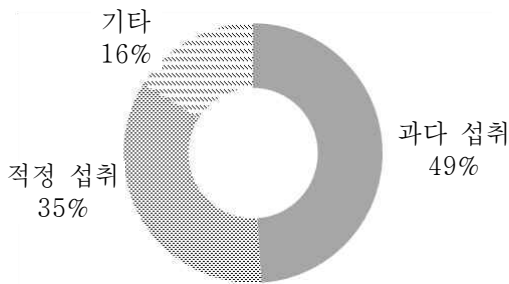
- ○○신문 -

(나) 전문가 인터뷰 자료

“많은 청소년들이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지나치게 선호합니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불면증, 집중력 장애,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러한 카페인의 부작용을 모르고 있고, 이것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어른들보다 카페인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는 그 유혹을 참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관리센터 소장 박○○ -

(다) 통계 자료



[청소년들의 하루 카페인 섭취 실태]

- ① (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잉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음을 소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카페인의 과잉 섭취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함께 카페인 섭취 욕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③ (가), (나)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카페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④ (가),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적정량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⑤ (나), (다)를 활용하여,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한다.

[2~3] <보기>는 ‘공정 무역’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초고이다. 2번과 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 보 기 > —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윤리와 나눔,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공정 무역’이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정 무역은 ‘공정하고 올바른 무역’이라는 뜻으로, 제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제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주고, ㉑ 윤리적·환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제품을 정당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국제빈민구호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영국 소비자가 우간다산 커피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돈 가운데 커피 재배 농민에게 돌아간 몫은 ㉒ 과연 0.5%였다고 합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농민들로부터 터무니없는 헐값에 커피콩을 사들이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구조는 생산 농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㉓ 공정 무역은 불공정한 무역구조를 개선해 선진국과 후진국이 함께 혜택을 누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기존의 불합리한 무역 구조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정 무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공정 무역은 ‘착한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여성과 아동의 ㉔ 노동력이나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생산 과정을 통해 만든 제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㉕ 그리고 공정 무역의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매우 다양하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이는 공정 무역이 인류의 인권 신장과 친환경적인 생산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A]

2.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㉑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소비자들에게는’을 추가해야겠군.
- ② ㉒은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무려’로 고쳐야겠군.
- ③ ㉓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바로 뒤의 문장과 맞바뀌야겠군.
- ④ ㉔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으로 고쳐야겠군.
- ⑤ ㉕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겠군.

3. <보기>의 조건에 따라 [A]에 넣을 내용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 공정 무역이 갖는 의의를 언급할 것
- 공정 무역 제품의 소비를 직설적으로 권유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일 것

- ① 세계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공정 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 무역에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여러분의 행복도 그만큼 커집니다.
- ② 공정 무역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공정 무역 제품을 구입해 주세요. 여러분의 착한 소비가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에 내리는 촉촉한 단비가 될 것입니다.
- ③ 공정 무역은 인류가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정 무역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궁핍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④ 우리나라의 공정 무역 소비는 외국에 비해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인류의 인권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소비문화! 당신이 그 첫걸음을 떼지 않으시겠습니까?
- ⑤ 가혹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제3세계 어린이들의 고통을 아시는지요? 이제부터는 공정 무역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에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1 > —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활용을 하는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기본형]	[활용]
• 어간이 바뀌는 경우	묻다	묻고, 물어(← 묻 + 어) ……
• 어미가 바뀌는 경우	누르다	누르고, 누르러(← 누르 + 어) ……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하얏다	하얏고, 하얘(← 하얏 + 아) ……

— < 보 기 2 > —

ㄱ. 걸어서 도착한 무진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ㄴ. 선생님이 웃는 표정을 지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ㄷ. 신록이 짙어지니 멀리 있는 산이 푸르러 보이는구나.

ㄹ. 한 십 년쯤 세월이 흘러 우리가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ㅁ.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빨개서 묻는 말에 대답도 못 한다.

- ① ㄱ의 ‘걸어서’는 기본형이 ‘걷다’이므로 어간이 바뀐 경우이군.
- ② ㄴ의 ‘지어서’는 기본형이 ‘짓다’이므로 어간이 바뀐 경우이군.
- ③ ㄷ의 ‘푸르러’는 기본형이 ‘푸르다’이므로 어미가 바뀐 경우이군.
- ④ ㄹ의 ‘흘러’는 기본형이 ‘흐르다’이므로 어미가 바뀐 경우이군.
- ⑤ ㅁ의 ‘빨개서’는 기본형이 ‘빨갳다’이므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경우이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일을 타고 오른다.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
확고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암벽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無明)의 벌레처럼 무명을
더듬는다.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암벽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한다.
행복이라든가 불행 같은 것은
생각지 않는다
발 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

- 오세영, 「등산」 -

(나)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홍부 부부상」 -

(다)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원 독수리아!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야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멧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沈澱)하는 프로메테우스.

- 윤동주, 「간」 -

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현재의 처지를 수용하는 자세가 담겨 있다.
- ② 유한한 삶에서 오는 허망함이 드러나 있다.
- ③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인생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세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다.

6.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가)는 반어적 표현을, (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동일한 시행을, (나)는 감탄형 어미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가), (나)는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7. <보기>는 수업 시간에 (나)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를 추리해 발표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 보 기 > —

- ㄱ. ‘웃음살’은 ‘박덩이를 사이 하고’를 고려할 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운이 뒤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ㄴ. ‘웃음’은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의 의미와 연결할 때, 풍요롭지는 않지만 소박하게나마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웃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ㄷ. ‘웃어’는 ‘손발 닳은 처지끼리’와 연계할 때, 고달픈 삶을 함께 해 왔던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ㄹ. ‘웃다가’는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를 고려할 때, 비참한 현실 상황을 자각한 후 느낀 절망감이 내재된 자조적 웃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ㅁ. ‘본(本)웃음’은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가난한 삶의 한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사랑이 담긴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8.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관련 설화]

- 「구토지설」에서 ‘토끼’는 거북이의 유혹에 이끌려 용궁에 간 후 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용궁의 권력으로부터 간을 지켜 냈다.
-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어 인류의 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로 인하여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코카서스 산중의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고통을 받았다.

[윤동주의 시, 「간」에 나타난 시인의 내면 의식]

윤동주는 일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늘 부끄러워했다. 그의 부끄러움은 식민지 지식인의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정신적 자아’와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육체적 자아’의 갈등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그가 독립운동의 혐의로 검거된 후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사실은, 내적 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자아를 서서히 소멸시켜 나간 그의 양심이 독립을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실천적 행동으로 발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은 이러한 그의 내면 의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 ① ‘습한 간’은 식민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삶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시인의 부끄러움이 내재되어 있다.
- ② ‘코카서스 산중’은 ‘토끼’에게 시련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한다.
- ③ ‘여윈 독수리’로 비유된 ‘너’는 정신적 자아인 ‘나’를 뜯어 먹으며 살찌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육체적 자아를 의미한다.
- ④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시인이 부정적 시대 현실에서 자신의 정신적 자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친 죄로 ‘맷돌’을 매달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시인과 동일시된 대상이다.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경』의 「홍범(洪範)」 편에 “치우침이 없고 사사로움이 없으면 왕도가 넓고 평평할 것이며, 어긋남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으면 왕도가 정직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모든 정사가 중앙으로 모여 공명정대한 데로 돌아가리라.”라고 하였다. 이처럼 극(極)을 세운 도는 마침내 탕평(蕩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탕평의 요점은 한쪽으로는 치우침과 사사로운 마음을 막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우치고 사사롭게 하면 어긋나고 기울어지게 되며, 넓고 공평하게 하면 바르고 곧게 될 것이다.

중등 이상의 사람은 말로써 그 잘못을 깨우칠 수 있으나, 중등 이하의 사람은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이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내 그 말을 듣고 기뻐하기만 하고 그 뜻을 되새기지 않을 것이며, 그 말을 따르기만 하고 정작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

이로운 것을 좇고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은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이다. 연(燕)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배를 함께 탔을 때,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풍량을 막는 데에서는 지혜와 힘을 기울임이 한결같으니, 이는 이해(利害)가 같기 때문이다. 부부가 한집에 사는데 씨족도 다르고 습속도 다르지만 살림을 하는 데에서는 다른 마음이나 생각을 갖지 않으니, 이 또한 이해가 같기 때문이다. 조정에 있는 대소의 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연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배를 함께 타고, 부부가 한집에서 살림하는 것처럼 한다면, 탕평이 이룩될 것이다. 그러나 한쪽은 총애하고 한쪽은 소홀히 하여 한쪽은 즐겁고 한쪽은 괴로우며, 부귀와 빈천의 간격을 고르게 하지 못하고서 한갓 ㉠ 빈말로 타이르고 실상이 없는 꾸지람을 하는 데 구구하게 힘을 허비하면서, 자기 몸에 절실한 이해를 버리고 남의 권유를 따르라고만 한다면, 탕평이 어려울 것이다. 이로 보아 「홍범」에서 ㉡ “임금이 극(極)을 세운다.”라고 말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당나라 · 송나라 때에는 과거 시험을 널리 베풀어 인재 선발이 빈번하였다. 따라서 영화와 총애를 바라는 데 급급해하는 것이 그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었다. 이로운 데로 나아가는 구멍은 하나뿐인데 백 사람이 뚫고 들어가려 하니, 어떻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 원망을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등용하고 물리침에 극(極)이 바로 서지 못하면 왕도(王道)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쟁의 화는 대체로 과거 시험을 자주 베풀어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줄 알았으면 오늘부터라도 사람 뽑는 것을 점차 줄여야 한다. 국가에 경사(慶事)가 자주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과거 시험을 실시한다. 과거(科擧)와 경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몇 사람일 뿐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 경사를 함께한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는 모두 귀족이나 세도가의 자제들뿐, 사방에서 모여든 한미(寒微)한 사람은 그 속에 들지 못하는 데 있어서라?

- 이익, 「탕평(蕩平)」 -

9. 위 글에서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② 인용을 하면서 글을 시작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 ③ 체재를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 ④ 대비의 방법을 사용하여 논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 ⑤ 상황을 가정하여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경계한다.

10. 위 글의 글쓴이(A)와 <보기>의 글쓴이(B)의 인재 등용에 대한 견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것을 명문의 집과 과거(科擧)로써 제한하니, 인재가 늘 모자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금에 첩이 낳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집 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조막만 하고 더욱이 양쪽 오랑캐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 더러 나랏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 없는데, 도리어 그 길을 스스로 막고서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없다.”라고 탄식한다. 이것은 남쪽 나라를 치러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내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 허균, 「유재론」에서 —

- ① A는 과거의 실시 횟수를, B는 과거의 응시 목적을 문제 삼고 있다.
- ② A는 인재의 등용 방법을, B는 인재의 양성 방법을 문제 삼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나라에 쓸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부조리한 폐단이 많은 과거 시험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둘 다 인재가 골고루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11. 위 글의 핵심 논지를 고려할 때, ㉠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3점)

- ① 절제하지 않으면 찻잔의 물이 흘러넘치듯이,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임금이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② 배를 풍랑에서 보호하려면 지혜를 모아야 하듯이, 나라를 내우외환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임금이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③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임금이 정사를 펼칠 때 치우침이 없어야 왕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④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그림 조각을 짜 맞출 수 있듯이, 흩어진 왕도를 바로잡으려면 임금이 국가의 예법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⑤ 소나무가 사시사철 그 푸름을 유지하듯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려면 임금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피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12.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허언(虛言)
- ② 감언(甘言)
- ③ 실언(失言)
- ④ 망언(妄言)
- ⑤ 참언(讒言)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대체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한국어와 꽤 다르다. 그들의 모국어가 새로 익힌 한국어에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에도 생기는 일이다. 예컨대 한국어 ‘결혼하다’는 자동사여서, “나와 결혼해 줘.”라고 얘기해야지 “나를 결혼해 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한국인은 “Marry me.”라는 두 낱말 사이에 ‘with’를 끼워 넣고 싶어 한다.

한국어는 음운 구조나 통사 구조가 외국어들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들이 쓰는 한국어에는 이들의 모국어가 행사하는 간섭의 흔적이 짙게 나타난다. 많은 외국어들이 조음점이 같은 자음들을 성대 진동 여부로 변별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는 /h/ 소리를 동반하는 정도에 따라 이런 자음들의 차이를 변별한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매우 쉬운 /ㄱ, ㅋ, ㆁ/, /ㄷ, ㅌ, ㄸ/, /ㅂ, ㅃ/, /ㅅ, ㅆ/의 구별이 어떤 외국인들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 된다.

한국어의 유성음에는 모음과 유성 자음인 /ㄴ, ㄹ, ㅁ, ㅇ/이 있다. 그런데 ㉠ 무성 자음은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동화를 통해 유성음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고고학’의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은 음소 수준에서 둘 다 /ㄱ/으로 시작되지만, 음성 수준에서는 무성음 [k]와 유성음 [g]로 각각 실현된다. 그래서 ‘고고학’은 [ko:gohak]으로 발음된다. 한국어 화자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규칙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구사하고 있지만, 자신의 모국어에 이런 규칙이 없는 외국인들은 이를 익히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고고학’을 [고코학], [꼬꼬학], [코꼬학] 비슷하게 발음하기 쉽다.

한국어에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음운 규칙들이 많다. 예컨대 ‘독립문’이나 ‘불난리’를 글자 그대로 [독립문], [불난리]로 읽지 않고 왜 [동님문], [불랄리]로 읽어야 하는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알 도리가 없다. 이런 복잡한 규칙이 아니더라도, 한국어의 /—/나 /—/ 같은 독특한 모음을 외국인들이 제대로 익히는 일은 쉽지 않다.

통사 수준의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더하다. 일본어와 같이 통사 구조가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은 한국어 문장 성분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주격 조사 ‘이’, ‘가’와 보조사 ‘은’, ‘는’의 구별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자신의 모국어에 조사가 없는 외국인들은 “꽃이 핀다.”와 “꽃은 핀다.”, “아이가 운다.”와 “아이는 운다.”의 의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아예 조사를 생략하고 “꽃 핀다.”, “아이 운다.”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예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은 외국인들이 겪어야 할 끝도 없는 고달픔의 시작일 뿐이다. 가까스로 통사 구조를 익히고 나면, ㉡ 한국인들도 더러 헛갈려 할 만큼 복잡한 경어 체계가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한국에서 살거나 아예 한국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외국인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 만약 이들이 모국어 집단별로 사용하는 탈규범적 한국어가 어느 수준의 실용성을 획득한다면, 한국에도 일종의 혼성어인 ㉢ 피진 비슷한 언어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권에 따라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모국어에 대한 지식이 때로는 외국어를 학습할 때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 ② 모국어에 조사가 없는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말할 때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 ③ 한국어에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가 발음하기 어려운 특유의 소리가 있다.
- ④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은 성대의 진동 여부에 따라 모든 자음들을 변별한다.
- 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이 한국어의 모든 음운 규칙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혼자 앉아 찾아오는 손님도 없이
빈 뜰엔 비 기운만 어둑하구나.
물고기가 흔들는지 연잎이 움직이고
까치가 밟았는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거문고가 젖었어도 줄에서는 소리가 나고
화로는 싸늘한데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진흙길이 출입을 가로막으니
하루 종일 문을 닫아걸고 있다.

— 서거정, 「독좌(獨坐)」 —

(나)

옷가슴 헤쳐 내여 광한전을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퇴려 하였더니
마음 나쁜 부운(浮雲)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천지가 캄캄하여 백물(百物)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 반각(遙岑半角)*에 옛 빛이 비치는 듯
운간(雲間)에 나왔더니, 때구름 미쳐 나니,
㉠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뜰 안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영(桂影)*인가 돌아보니,
치량한 암향(暗香)*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렴(疎簾)을 지워 놓고 동방(洞房)에 혼자 앉아
㉡ 금작경(金鵲鏡)* 닦아 내어 벽상에 걸어 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
㉢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고자.
㉣ 장공(長空)은 만 리요 이 몸은 진토(塵土)니
쓸쓸한 이내 뜻이 헤나니 허사로다.
가득 근심 많은데 긴 밤이 어떠한가?
전전반측(輾轉反側)하여 다시금 생각하니
영허 소장(盈虛消長)*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風雲)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겠는가?
㉤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켜서 명월(明月) 불 날 기다리노라.

* 요잠 반각 : 아득히 보이는 산봉우리의 반쪽 끝.

* 암향 : 그윽이 풍기는 매화의 향기.

* 단단 환선 : 비단으로 만든 둥근 모양의 부채.

* 계영 : 계수나무 그림자.

* 금작경 : 황금 까치를 조각한 거울.

* 영허소장 : 달이 차고 지며, 초목이 자라고 스러짐.

— 최현, 「명월음(明月吟)」 —

(다)

불의의 실직과 주립과 공포 속에서 낙엽처럼 정처 없이 굴러다니는 나그네 길 반 년, 어느 날 뜻밖에, 정말 천만 뜻밖에 R이란 대학생이 내 숙소를 찾아왔다. 그것도 이른 아침. 나는, 어떻게 그가 나 있는 곳을 알았을까 하는 놀라움과 동시에 반가움을 숨길 도리가 없었다.

그러한 내 심정을 미리 헤아렸음인지, 일찍이 내 이웃에 산 일이 있던 R군은, 우연히 내 집에 들렀다 오는 길이라는 사연을 밝히면서, 내 겨우살이와 석류(石榴) 두 개를 꺼내 놓았다. 아이들의 편지도 함께.

나는 첫눈에 그 석류가 내 집 뜰에서 익은 것이라고 알아차렸다. 빨갭게 물든 석류를 앞에 두고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생각이 그지없었다.

피 본 막내딸애의 편지에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석류도 이제는 다 익어서 빨갭게 물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동네 아이들이 담 너머서 장대로 제일 이쁜 것을 들이나 훑어 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그놈들을 뒤쫓느라고 야단을 했을 거라고, 모두들 웃었습니다…….”라고.

석류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가꾸던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함이 도리어 안타까웠다. 조롱조롱 가지에 매달린 석류를 쳐다보며, 그것이 익기 전부터 애비를 못내 그리워했을 것이고 익고선 더욱 아쉬워했을 것을 생각하면, 금방 목에 무엇이 치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R군의 말을 들으면, 둘 중 하나는 맨 꼭대기에 달렸던 것이라니, 다른 때 같으면 가장 오래도록 두고 보던 그것을 특별히 따서 보낸 아이들의 마음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중략)

나는 물끄러미 **석류**를 바라보면서, 먼 고향과 거기에 두고 온 아내며, 아이들이며, 또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석류 알처럼 예쁘게 박힌 흰 이빨과 또 귀여운 얼굴들을 잊지 못했다.

더구나 곱게 물든 석류 빛처럼 아름답던 얼굴빛들이, 이제는 버릇없는 욕지거리에만 붉어지게 마련이고, 못난 나로 말미암은 만단수심(萬端愁心)에 찢기 없이 질리고 시들어지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들을 지키고 돌보지 못하고 낙엽처럼 굴러만 다니는 내 자신이 그지없이 슬프기만 했다. 만약 석류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연들을 얼마나 절절하게 알려 줄 것인가? 그러나 나는 말없는 석류의 표정에서 무한한 말들을 엿듣고 있지 않았던가? ㉠ 그러기에 나는 그것을 책상에 두어 두고 차마 깨지 못했다.

- 김정환, 「석류 일기」 -

1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여유로운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대상을 예찬하며 대상과 화합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과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8. **매화**와 **석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매화’는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고, ‘석류’는 감정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② ‘매화’는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고, ‘석류’는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이다.
- ③ ‘매화’는 화자가 비관적으로, ‘석류’는 화자가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매화’와 ‘석류’는 모두 화자가 깨달은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소재이다.
- ⑤ ‘매화’와 ‘석류’는 모두 화자의 심리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계에서 물러나 한가로움을 즐기며 칩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나가 자신의 열정과 포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심정을 담고 있다.

- ① ‘빈 딸’은 찾아오는 손님도 없다는 점에서, 세상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고독한 마음을 담고 있다.
- ② ‘연잎’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계에서 물러난 처지에서 느끼는 삶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화로’는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세상에 대한 열정과 포부를 간직하고 있는 화자를 의미하고 있다.
- ④ ‘진흙길’은 화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 ⑤ ‘문’은 화자가 닫아걸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에 나갈 때를 기다리며 칩거하고자 하는 심정을 담고 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최현은 34세에 미관말직(微官末職)으로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의병에 가담하였다. 왜란이 끝난 뒤인 4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다. 그가 지은 「명월음」은 임진왜란 당시 피난길에 오른 임금의 안위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① ㉠은 임금이 피난길에 오를 정도의 암울한 전시 상황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의병에 가담한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환란에서 임금과 나라를 지키고 싶은 우국충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 하급 관리로서 자신의 정치적 힘이 미약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은 현재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1. (다)의 ㉤의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 ① 집으로 빨리 돌아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 ②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 ③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 ④ 홀로 있는 나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 ⑤ 가족과의 추억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건 마치 두꺼운 유리 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로군. 문득 동호는 생각했다. 산 밑이 가까워지자 낮 기운 여름 햇볕이 빈틈없이 내리부어지고 있었다. 시야는 어디까지나 투명했다. 그 속에 초가집 일여덟 채가 무거운 지붕을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전혀 전화를 안 입어 보이는데 사람은 고사하고 생물이랄까 무엇 하나 살고 있지 않은 성실하게 주위가 너무 고요했다. 이 고요하고 거침새 없이 투명한 공간이 왜 이다지도 숨 막히게 앞을 막아서는 것일까. 정말 이건 두껍디두꺼운 유리 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 느낌인데. 다시 한 번 동호는 생각했다. ㉠ 부리를 앞으로 향한 총을 꼭 옆구리에 끼고 한 발자국씩 조심조심 걸음을 내어 디딜 때마다 그 거창한 유리는 꼭 동호 자신이 순간순간 짓는 몸 자세만큼씩만 겨우 자리를 내어 줄 뿐, 한결같이 몸에 밀착된 위치에서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다. 절로 동호는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2미터쯤 간격을 두고 역시 총대를 옆구리에 낀 채 앞을 주시하며 걸음을 옮기고 있던 현태가 이리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느껴졌다. 무슨 농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려는지 모른다. 그러나 동호는 모른 채했다. 잠시나마 한눈을 팔았다가는 지금 자기가 가까스로 헤치고 나가는 이 밀도 짙은 유리가 그대로 굳어버려, 영 움쭉달짝 못하게 될 것만 같았다.

첫 집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40미터 안팎의 거리건만 한껏 멀어만 보였다.

수색이 시작되자 관심과 주의가 그리 옮겨지면서 동호는 지금까지 받아오던 압박감에서 적이 풀려났다. 수색대 조장인 현태가 손짓으로 대원 세 명에게는 집 둘레를 경비하게 하고, 자신은 병사 한 명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보통 때는 느리고 곧잘 익살을 부리던 현태가 전투태세로 들어가면 동작이 일변하여 야무져지고 민첩해지는 것이다. 어느새 바람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는 문을 확 열어젖히면서,

“폼짝 말어!”

나지막하나 속힘이 들어있는 목소리다.

몇 해나 묵은 창호지인지 검누르게 얼룩이 지고, ㉡ 군데군데 낡은 형겔 조각으로 땀질을 한 문짝이 열려진 곳에 드러난 킁킁한 방 안.

“손 들구 나와!”

밖에서 경비하던 세 사람까지 한순간 숨을 죽인다. 그러나 킁킁한 방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현태가 총구를 들이밀며 재빨리 방 안을 살핀다. 빈집이다. 그렇건만 부엌과 뒷간까지 뒤진다. 그전 살던 사람들이 가난한 살림살이나마 급작스레 꾸러가지고 간 흔적만이 남아 있다.

다음 집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도 현태는 번번이 바람벽에 등을 붙이고 문짝을 잡아 젓히면서, 폼짝 말어! 손 들구 나와!를 빠짐없이 외치곤 했다. 그러는 동안 밖에서 경비를 보던 동호는 점점 긴장이 풀리면서 어쩐지 현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어떤 떠난 세계의 일같이 생각됐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비현실적인 시간 속에 서있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 ㉢ 병사 하나가 안마당에 떨어져 있는 감자알을 주워 얼른 호주머니에 넣는다. 그것이 더 가까운 현실 같았다.

그러나 이들 수색대의 신경을 긴장시킬 만한 일이 하나 생겼다. 무전기를 메고 경비를 보고 있던 윤구가 어떤 집 뒷간 옆 잣더미에서 낫선 통발이 한 짝을 발견한 것이었다. 바닥이 닳아 구멍이 나고 운두가 해진 신발짝이었다. 첫 눈에도 그것은 마을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 이집 저집 잣간에서 닭털이며 돼지털이며 개털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뼈만은 그 중 넓은 집 마당에 아무렇게나 내버려져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음식을 먹고 간 자리임에 틀림없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단시간에 어지럽히고 간 어수선했음이 아직 남아 있었다. 쉬파리가 들끓는 뼈다귀의 빛깔이 그다지 검게 변색되지 않은 걸로 미루어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대원 다섯 명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면을 둘러보았다. 앞은 골짜기를 따라 옥수수밭과 고구마 밭이 있는 길쭉한 벌을 사이에 두고 높고 낮은 구릉이 가로질렀고, 뒤는 좀 전에 자기네가 넘어온 중허리 위쪽에 희뿌연 바위로 뒤덮인 산이 올려다보였다. 그러는 그들의 눈앞에는 변함없이 낮 기운 여름 햇살이 내리부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새삼스레

주위가 너무 고요하다는 걸 느꼈다. 이 괴괴한 어느 지점에서 혹시 누가 자기네를 줄곧 감시나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 어떤 말 못할 압박감이 엄습해 왔다. 동호는 다시금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에 억눌려야만 했다. 이 유리가 저쪽 어느 한 귀퉁이에서 부서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견갑을 새 없이 몽땅 조각이 나고 말 테지. 그리고 무수히 날이 선 유리 조각이 모조리 몸에 들어박힐 거라. 동호는 전신에 소름이 끼쳐 몸을 한 번 떨었다.

어떤 새로운 움직임만이 이 벅찬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됐다. 남은 집을 마저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섯째 집에서 그들의 긴장을 한층 자극시키는 일이 생겼다. 현태가 역시 바람벽에 바짝 등을 붙이고 문짝을 획 잡아 젓히면서, 꼼짝 말어! 했을 때 방안에서 사람의 기척이 났던 것이다.

(중략)

“여기 왔던 군인이 떠놈들야? 인민군새끼들야?”

“조선 사람데요…….”

“언제 왔다 언제 갔지?”

“어제 밤중에 왔다…… 오늘 새벽 어둡서 갔어요.”

“얼루?”

여인이 가늘게 떨리는 턱으로 앞쪽을 가리켰다.

“뭇 놈이나 되지?”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쉴 명…… 백 명…….”

이런 산골 여인의 수에 대한 관념이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젊은 남정네들은 그 사람들이 데리구 가구……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다간 죽는다는 바람에 죄다 피하구…….”

“왜 같이 안 갔소?”

현태의 음성이 약간 부드러워졌으나 시선만은 그냥 날카롭게 여인의 눈 속을 쏘아보고 있었다.

여인이 몇 번이고 눈을 깜빡여 현태의 시선을 피하면서 떨리는 고개를 방안으로 돌렸다. 거기에는 ㉠ 어린것이 말라비틀어진 팔을 조용히 포대기 밖에 내놓은 채 여전히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 입과 코와 눈언저리에 파리가 까맣게 붙어 있었다.

“저런 걸 업구 나갔다간…… 길에서 죽일 것 같아서…….”

여인의 말소리는 목안으로 기어들었다.

남은 두 빈집을 마저 수색하고 나서 ㉡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을 제각기 수통에 넣어 가지고 뒷산으로 올라 갔다. 대낮에 다섯 명이나 산마루에서 어른거리는 일은 위험한 짓이다. 산허리께 나무숲을 지나 팔부 능선쯤 되는 바위 그늘에다 자리를 잡았다.

-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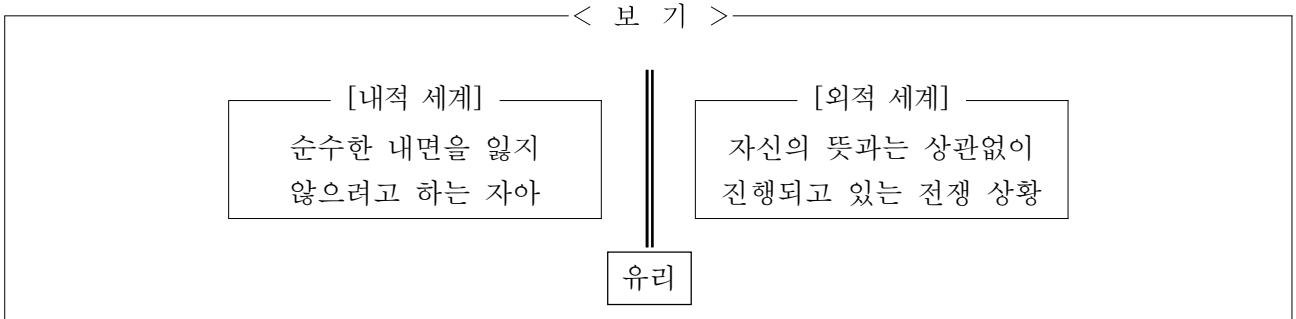
22.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2점)

- ① 여인은 현태의 심문에 순순히 대답했다.
- ② 동호는 수색 작전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 ③ 현태는 전투가 시작되면 평상시와 태도가 달라졌다.
- ④ 인민군들은 마을에서 가축들을 잡아먹은 후 이동하였다.
- ⑤ 다섯 명의 대원들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마을 수색을 마쳤다.

2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설정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③ 회상 기법으로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키고 있다.
- ④ 다양한 사건들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갈등의 해소 과정을 추리 형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동호의 입장에서 '유리'가 갖는 의미를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폐쇄적인 내적 세계에서 개방적인 외적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호의 자의식이 '유리'라는 소재로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외적 세계로 나가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동호의 나약한 자의식이 깨지기 쉬운 '유리'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전쟁 상황에 환멸을 느껴 잃어버린 자신의 순수한 자아를 되찾으려고 하는 동호의 갈망이 '유리'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내적 자아가 외적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오는 동호의 고뇌가 '유리'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전쟁이라는 외적 세계에서 자신의 순수한 내면을 간직하려고 하는 동호의 짓눌린 자의식이 '유리'라는 소재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5. 문맥을 고려할 때, ㉠~㉤에 있는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총'을 짊어 간 모습은 수색 작전을 수행하며 느끼고 있는 긴장감을 보여 준다.
- ② ㉡: '방'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떠난 텅 빈 마을의 스산한 분위기를 보여 준다.
- ③ ㉢: '감자알'은 전쟁이라는 열악한 여건에서 본능적 욕구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 '어린것'의 모습은 전쟁 중에 생명이 꺼져 가는 비참한 상황을 보여 준다.
- ⑤ ㉤: '우물물'은 전쟁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 준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이 스스로 소리를 내서 그것이 물체에 부딪쳐 되돌아오는 반사음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반향정위(反響定位)라고 한다. 반향정위를 하는 대표적인 육상 동물로는 박쥐를 꼽을 수 있다. 야간에 활동하는 박쥐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먹이를 손쉽게 포획하는 것을 보면 반향정위는 유용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박쥐는 성대에서 주파수가 40~50kHz인 초음파를 만들어 입이나 코로 ㉠ 방사(放射)하는데, 방사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먹이를 찾고 있을 때는 1초에 10번 정도의 간격으로 초음파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먹이에 접근할 때는 보다 정밀한 정보 수집을 위해 1초에 120~200번 정도의 빠른 템포로 초음파를 발생시켜 먹이와의 거리나 먹이의 방향과 크기 등을 ㉡ 탐지(探知)한다. 박쥐는 되돌아오는 반사음을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얼굴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크게 발달한 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달팽이관의 감긴 횟수가 2.5~3.5회로 1.75회인 인간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박쥐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매우 넓은 범위의 초음파까지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박쥐는 먹이의 위치나 이동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박쥐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플러 효과란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과 그 파동을 관측하는 관측자 중 하나 이상이 운동하고 있을 때, 관측되는 파장의 길이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구급차가 다가오고 있을 때는 사이렌 [A] 소리의 파장이 짧아져 음이 높게 들리고 멀어져 갈 때는 소리의 파장이 길어져 음이 낮게 들리는데, 이는 도플러 효과 때문이다. 박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수시로 바뀌는 반사음의 변화를 파악하여 먹이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 포착(捕捉)한다. 만일 돌아오는 반사음의 높이가 낮아졌다면, 먹이는 박쥐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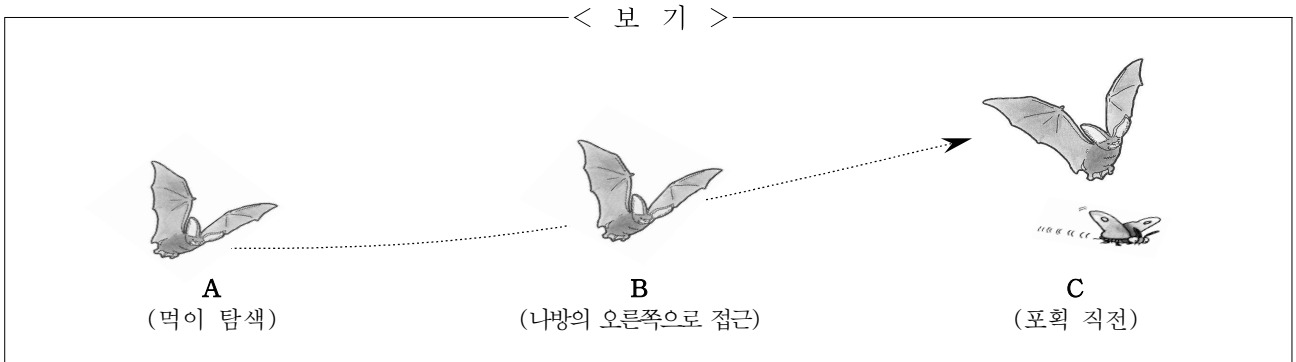
박쥐는 주로 곤충을 먹고 산다. 그런데 어떤 곤충은 박쥐가 내는 초음파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박쥐의 접근을 눈치 챌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쥐의 주요 먹잇감인 나방은 초음파의 강약에 따라 박쥐와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고, 왼쪽과 오른쪽 귀에 들리는 초음파의 강약 차이에 따라 박쥐가 다가오는 좌우 수평 방향을 알 수 있다. 박쥐가 다가오는 방향의 반대쪽 귀는 자신의 몸이 초음파를 ㉣ 차단(遮斷)하고 있기 때문에 박쥐가 다가오는 쪽의 귀보다 초음파가 약하게 들린다. 또한 초음파의 강약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박쥐가 다가오는 상하 수직 방향도 알 수 있다. 나방의 귀는 날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날개를 내리면 귀가 날개에 덮여서 초음파를 잘 듣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박쥐가 위쪽에 있을 때는 날개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소리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 초음파를 듣게 된다. 반대로 박쥐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귀도 박쥐도 날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날개의 퍼덕임과 상관없이 초음파가 거의 일정한 음량으로 들린다.

박쥐가 내는 초음파의 반사음은 움직이는 나방의 날개 각도나 퍼덕이는 속도에 따라서 그 파장이 다양하게 변한다. 때문에 나방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급회전이나 급강하, 또는 몸의 움직임을 멈추고 마치 죽은 듯이 그대로 자유낙하하는 행동을 취해 박쥐에게 전달되는 초음파 정보를 ㉤ 교란(攪亂)시킨다. 만일 박쥐가 수시로 바뀌는 나방의 동선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면 먹이를 놓치고 만다. 박쥐와 나방은 초음파를 둘러싸고 쫓고 쫓기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26.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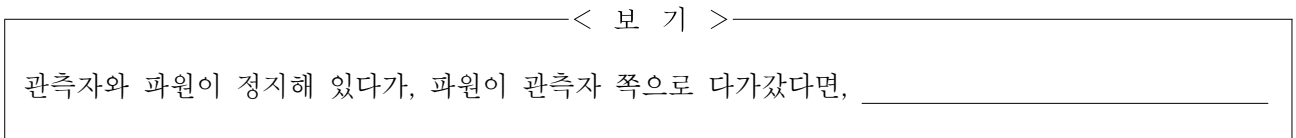
- ① 박쥐는 입이나 코에서 초음파를 만들어 낸다.
- ② 반향정위는 대부분의 육상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 ③ 달팽이관의 감긴 횟수는 초음파의 지각 능력과 관련 있다.
- ④ 박쥐의 초음파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의 주파수는 동일하다.
- ⑤ 나방의 움직임은 반사되는 초음파의 파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7. <보기>는 박쥐가 나방을 포획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박쥐는 A보다는 B에서 더 빠른 템포의 초음파를 발생시키며 나방에 접근하겠군.
- ② A에서 C로 이동했을 때 박쥐가 들은 반사음의 높이는 높아졌겠군.
- ③ 나방의 귀에 들리는 초음파의 강도는 박쥐가 A보다 B에 있을 때 더 크겠군.
- ④ C에서 나방은 일정한 음량의 초음파를 듣고 박쥐가 위쪽에 있다고 판단하겠군.
- ⑤ 박쥐가 B에 있을 때 나방의 왼쪽보다 오른쪽 귀에 더 강한 초음파가 들리겠군.

28.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파장이 비연속적으로 관측되었군.
- ② 이전보다 더 짧아진 파장이 관측되었군.
- ③ 관측되는 파장의 길이는 이전과 동일하겠군.
- ④ 파장이 반복적으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겠군.
- ⑤ 파원의 속도에 비례해서 파장이 점점 길어지겠군.

2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중심에서 사방으로 내뿜침.
- ② ㉡: 사물을 더듬어 찾아 알아냄.
- ③ ㉢: 확실하게 그러하다고 여김.
- ④ ㉣: 막아서 통하지 못하게 함.
- ⑤ ㉤: 뒤흔들어서 혼란스럽게 함.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기 서양 음악사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음악 양식은 성가(聖歌)이다. 성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레고리오 성가로, 초기에는 성부(聲部)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단선율 음악이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식상하게 느껴졌던 단선율 음악이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복선율로 바뀌는 혁명적 사건이 9세기 중엽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위법의 시초가 되었다. 대위법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선율이 동시에 노래되어도 소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대위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현되었을까?

대위법이 적용된 최초의 형태는 9세기 중엽에 발생한 평행 오르가눔이다. 동일한 선율이 완전 5도라는 음정의 간격을 ㉠ 두 고 두 사람에게 의해서 동시에 불리면, 두 선율은 협화음을 이루게 되어 서로 어울리는 음이 된다. 이때, 성가의 중심이 되는 주선율인 기존 선율은 상성부에 놓이고 이에 대응하는 부선율인 대위 선율은 완전 5도 아래 즉, 기존 선율의 하성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두 개의 선율이 특정 음정 관계를 평행으로 유지하면서 움직이도록 한 것이 최초의 대위법이며, 이 평행 선율이 바로 평행 오르가눔이다. 이 평행 선율의 탄생은 두 개의 선율이 동시에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후 대위법이 점차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11세기에는 자유 오르가눔이 등장했다. 자유 오르가눔은 평행 오르가눔과 달리 기존 선율은 하성부에, 대위 선율은 상성부에 놓인다. 그리고 대위 선율은 기존 선율이 움직이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는다. 자유 오르가눔은 대위 선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되, 기존 선율과의 음정 관계가 협화음을 유지하는 대위법이 적용되었다. 당시에는 완전 1도, 완전 4도, 완전 5도, 완전 8도의 음정이 협화음이었고, 두 선율 사이의 음정이 협화음이면 두 선율은 어울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2세기에는 화려한 오르가눔이 탄생했다. 이전까지의 오르가눔에는 기존 선율의 음 하나에 대해서 대위 선율 역시 하나의 음만 사용되었으나, 화려한 오르가눔의 경우에는 기존 선율의 음 하나에 대해서 대위 선율은 음군(音群)이 사용되었다. 말하자면 기존 선율과 대위 선율의 비율이 1:1이 아니라 1:다(多)가 된 것으로, 이전 시대의 오르가눔보다 대위 선율이 더 화려해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선율에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기존 선율 [A]의 각 음이 대위 선율에서 사용되는 음의 수에 따라 소리를 길게 내면서 기다리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즉 대위 선율에 세 개의 음이 사용될 때에는 3박자를, 네 개의 음이 사용될 때에는 4박자를 기다려 주는 것이다. 이것은 대위 선율이 기존 선율에 의존했던 이전의 오르가눔과는 달리, 기존 선율이 대위 선율에 따라 변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화려한 오르가눔에서는 기존 선율보다 대위 선율이 성가의 미적 감흥을 주는 중심 요소로 인식되었다.

12세기 말에 이르러 화려한 오르가눔은 또 다른 형태의 오르가눔으로 이어졌고, 이와 함께 대위법 또한 점점 고도로 발달하게 된다. 대위법은 서양 음악사에 있어서 단성(單聲) 음악을 다성(多聲) 음악으로 발달시킨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0.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2점)

- ① 오르가눔의 탄생 배경
- ② 오르가눔의 전수 방법
- ③ 오르가눔의 발달 과정
- ④ 오르가눔의 화음 구성
- ⑤ 오르가눔의 선율 배치 방식

31. <보기>는 위 글에서 언급한 각 오르가눔의 악보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① I에서 ⑥는 ⑤를 기준으로 협화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진행된다.
- ② II는 ③과 ④가 완전 5도의 음정 간격을 두고 진행되는 복선율이다.
- ③ III에서 ⑥는 ⑤의 음의 수에 따라 소리를 길게 내면서 연주해야 한다.
- ④ II와 III에서 ④와 ⑤는 기존 선율에 대응하는 대위 선율이다.
- ⑤ 대위법은 II→I→III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변천되었다.

32. [A]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주선율이 기존 선율에서 대위 선율로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기존 선율에 대한 대위 선율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기존 선율이 대위 선율만큼 음의 활용 기법에 있어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대위 선율보다 기존 선율에서 박자의 화려한 변주가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대위 선율과 기존 선율의 성부 위치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군.

33. ‘두다’의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그는 일이 많아서 비서를 두었다.
- ② 내 동생은 바둑보다 장기를 잘 둔다.
- ③ 교수님은 사관학교 출신을 사위로 두었다.
- ④ 나는 마음에 두었던 그녀를 드디어 만났다.
- ⑤ 나는 그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걸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려는 어떤 사람이 신발 제조 회사에 투자하면 그 해 겨울의 날씨에 관계없이 28만 원의 이익이 생기고, 코트 제조 회사에 투자하면 그 해 겨울이 추울 경우 50만 원, 따뜻할 경우 1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어떤 투자가 더 합리적일까? 이럴 경우 우리는 이익과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한 값, 즉 ‘기대 이익’의 값을 통해 투자 회사를 결정해 볼 수 있다. 그 해 겨울의 날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1/2의 확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회사

[A]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이익은 옆의 표와 같다. 코트 회사가 기대 이익이 더 크므로, 신발 회사보다는 코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두 회사 중 신발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의 이런 행동에 는 기대되는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날씨라는 불확실성을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기대 이익만을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르누이는 그가 고안한 게임을 통해 설명하였다. 베르누이는 동전을 던져 첫 번째에 앞면이 나오면 2달러(2¹달러), 두 번째에 처음 앞면이 나오면 4달러(2²달러), 세 번째에 처음 앞면이 나오면 8달러(2³달러), n번째에 처음 앞면이 나오면 2ⁿ달러를 상금으로 주는 게임을 생각했다. 즉 뒷면이 계속 나올수록 상금이 많아지고, 앞면이 나오는 순간 더 던질 기회가 없어지는 게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참가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이 게임의 기대 이익을 산출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시행 횟수가 무한대까지 가능하므로, 이 게임의 기대 이익은 무한대가 된다. 따라서 기대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돈 전부를 참가비로 내더라도 사람들은 게임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참가비가 단돈 50달러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 게임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일종의 모순과도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원인은 ‘효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효용 이론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만족도, 즉 ‘효용’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선택 행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만약 위 게임의 참가비가 50달러라면, 최소한 이것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섯 번째에 처음 앞면이 나와 64달러(2⁶)를 상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그 확률은 (1/2)⁶인 1.56%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자신의 손에 있는 50달러를 그대로 지니고 있을 때의 효용보다, 비록 확률은 낮아도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더 크거나 최소한 같은 사람들은 게임에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효용 이론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효용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효용 함수’와 ‘기대 효용’을 사용한다. 효용 함수는 불확실한 상황의 위험을 반영하여 효용의 크기를 변환한 것이다. 베르누이의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 크레이머는 ‘효용 = √상금’이라는 효용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에 의하면 이 효용 함수를 갖는 사람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100달러의 효용을, 안전하게 있는 10달러의 효용과 같게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하여 베르누이가 제안한 게임의 기대 효용을 구해 보자. 기대 효용은 효용과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한 값인데, 효용 함수가 ‘효용 = √상금’이므로 기대 효용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text{기대 효용} = \sqrt{2^1}(1/2) + \sqrt{2^2}(1/2)^2 + \sqrt{2^3}(1/2)^3 + \dots + \sqrt{2^n}(1/2)^n = \sqrt{2} + 1 = 2.413$$

또한 이렇게 계산된 기대 효용 2.413을 다시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823달러(2.413²)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금은 무한대라고 하지만, 기대 효용의 화폐 가치는 6달러도 채 못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효용 함수를 갖는 사람은 아마도 50달러의 참가비를 내고서는 베르누이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효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 아래에서 기대 이익 외에 기대 효용을 함께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34.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확률이 기대 효용에 미치는 영향
 - 위험을 기피하는 심리를 중심으로
- ② 불확실성과 기대 이익의 상관관계
 - 베르누이의 게임을 중심으로
- ③ 기대 이익에 따른 합리적 투자법
 - 효용 함수의 특징을 중심으로
- ④ 크레이머의 효용 함수가 갖는 의미
 - 기대 효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 ⑤ 불확실성 아래에서의 의사 결정
 - 기대 이익과 기대 효용을 중심으로

35.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특정 이론의 관점에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 ③ 어떤 현상에 대한 비판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반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④ 어떤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의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소개하고, 각 관점이 갖는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36. [A]와 <보기>를 함께 고려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효용 함수를 ‘ $\text{효용} = \sqrt{\text{이익}}$ ’이라고 할 때, [A]의 신발 회사나 코트 회사 주식에 투자할 경우의 기대 효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효용		기대 효용 (효용×확률)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	
신발 회사	$\sqrt{28}$	$\sqrt{28}$	5.29
코트 회사	$\sqrt{50}$	$\sqrt{10}$	5.12

- ① 기대 효용을 제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신발 회사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군.
- ② 코트 회사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이겠군.
- ③ 기대 이익과 기대 효용이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니 투자할 때에는 신중해야겠군.
- ④ 추운 겨울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도 신발 회사의 기대 이익이 증가하지는 않겠군.
- ⑤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기대 이익이 같아지므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든 그 이익이 같겠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에 진평왕이 서현을 양주(梁州) 총관(摠官)으로 임명하고 군사 2천 명을 주어 고구려의 낭비성(娘臂城)을 치게 했다. 고구려 장수 고복(高福)이 나와 맞아 싸우는데, 김양주가 그 선봉을 크게 쳐부수자 고복이 군사를 거두어 요새로 물러갔다. 그리고 몰래 정병(精兵) 5백 명으로 산을 넘어 남쪽으로 가서 신라의 보급로를 끊자, 양주의 군사가 양식이 떨어져 크게 곤란하였다. 이에 고복이 성문을 열고 나와 싸우니 신라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 ㉠ 고구려 군사가 서현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자, 서현이 하늘을 우러러 군사들에게 맹세하면서 죽기로 싸울 것을 기약하였다. 고복이 사면으로 군사를 독촉하니 성이 거의 함락되었다.

이때 유신은 산음현의 수정궁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구형왕이 또 꿈에 나타나 청하여 말하길,
“너의 아버가 지금 낭비성에 있는데, 고구려 군사에게 포위되어 오래지 않아 위태로울 것이다. 너는 어찌 가서 구하지 않느냐?”

하였다. 꿈에서 깨자 유신이 곧 두 장수를 불러 꿈 이야기를 하고 말하길,

“내 곧 고구려에 가서 대인의 위급함을 구할 것인데, 그대들은 나를 따를 것인가?”

하니 모두 말하길,

“저희들이 여기까지 따라 왔는데, 비록 물과 불 속인들 잠시라도 명공을 떠나겠습니까?”

하고는 드디어 출발하였다.

유신이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르니, 휘하(麾下)에 쫓는 기병이 30명이었다. 설윤태(薛允泰), 변석(邊釋) 등을 불러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따르라 하고 30기로 밤새 적진으로 향하였다. 5백여 리를 가니 동방이 비로소 밝았는데, 멀리 바라보니 한 떼의 군사가 가는 길을 막았다. 유신이 말을 달리며 크게 고함을 지르니, 고구려 장수가 황급히 나와 맞았다. 유신이 천룡검을 휘둘러 한 장수를 죽이고 군사 수십 인을 베니 ㉡ 고구려 장수 기숙이 크게 놀라 군사를 거두어 달아났다.

유신이 30기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고 멀리 한 곳을 보니 병마가 여러 겹으로 둘러 서 있었다. 유신이 대인이 포위된 줄 알고, 크게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말을 채찍질하여 가며 크게 소리쳐 말하길,

“신라 장군 김유신이 여기 왔다!”

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칼을 뽑아 기장(旗將) 네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 원일원으로 하여금 동쪽으로 쳐들어 오게 하고, 지경개로 하여금 서쪽으로 쳐들어오게 하여 좌우로 충돌하니, 고구려 군사가 크게 어지러워 죽는 자가 무수하였다. 고복이 크게 놀라 말하길,

“어찌 이리 신라에 명장이 많으나.”

하며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유신이 중영(中營)에 들어가 대인을 뵈고 말하길,

“불초자 유신이 집을 떠난 지 7년 만에 대인의 위급함을 듣고 감히 와서 구하였습니다.”

하니, ㉣ 서현이 한편으로는 슬퍼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손을 잡고 말하길,

“네가 어떻게 하여 이곳에 왔느냐?”

하였다. 유신이 산음현에서 능을 모시면서 무예를 익히던 일을 모두 고하니 서현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길,

“우리 집이 가락국 왕실(王室)의 기운으로 대대로 명장이 나는구나.”

하였다. 유신이 두 장수를 불러 양주에게 절하게 하였다. 양주가 말하길,

“참으로 용맹한 장수로다.”

하고, 곧 유신을 호군으로 삼고, 그날 두 장수를 불러 좌우참군(左右參軍)으로 삼았다. 다음날 설, 변 두 장수가 군사를 거느려 오고 보급로가 또한 통하니 군의 위세가 다시 떨쳤다. 대인이 이 승세를 타고 돌아가고자 하니, 유신이 나아가 아뢰길,

“제가 평생 충효로써 스스로 다짐하였는데, 이제 전장에 임하여 용맹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대인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드디어 말을 중형으로 몰며 칼을 뽑아 들고서 깊은 구덩이를 뛰어 넘어 고구려 진으로 돌입하여 고복을 베고 돌아오니 고구려 군사가 당해내지 못하였다. 양주가 보고 큰 기를 휘두르며, 성 아래에까지 바짝 나아가서 승세를 타서 5천여 급을 베고 천여 명을 생포하니 성 안의 군사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다.

김양주가 드디어 환군하여 서울에 이르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궁궐 밖에서 맞이하였다. 대인이 유신의 공을 아뢰고자 하니 유신이 그만두기를 간하여 말하길,

“소자(小子)에게 싸워서 이긴 공이 있다 하시면 대인께서는 군사를 잃은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유신이 비록 보잘것없고 못났지만 스스로를 파는 것이 부끄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한 번 싸워 이긴 공으로 출세의 구실을 삼겠습니까?”

하니, 대인이 옳게 여겼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드디어 군사를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종략 줄거리] 월성공자 김춘추는 백결선생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한다. 백결선생은 나라의 인재로 김유신을 천거한다.

공자는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하인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날 준비를 차려라. 내 곧 기계 땅으로 가겠다.”

하니, 하인이 아뢰길,

“날이 저물었으니 청컨대 내일 떠나십시오.”

하였다. 그날 밤 공자가 목욕재계하고 의관을 벗지 않은 채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날이 밝자마자 출발하였으니 대개 어진 사람 구하기에 급했던 것이다.

드디어 기계 땅에 이르러 수레를 문 밖에 머무르게 하고 문졸(門卒)로 하여금 성명을 통하게 하였다. 그때 김양주는 불국사(佛國寺)에 축원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유신은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을 모시고 있었다. 문졸이 들어와 아뢰길,

“지금 대상국(大相國) 월성공자께서 문 밖에 오셔서 유신을 뵙고자 합니다.”

하였다. 유신이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길,

‘저 사람이 필시 내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왔을 것이다. 그러면 마땅히 저 사람의 정성을 보리라.’

하고, 문졸에게 말하길,

“네 나가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일이 있으니 오신 손님은 잠시 기다리시라 하여라.”

하고, 문졸을 단단히 일러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공자가 수레를 세워 놓고 자못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신이 나오지 않았다. ㊸ 이때 날씨는 춥고 비가 내려 관이 모두 젖었으나 공자는 끝까지 꺼리지 않았다. 수레를 모는 하인이 화가 나서 돌아갈 것을 청하자 공자가 꾸짖으며 물리쳤다. 이에 유신은 집 안에서 공자가 정성스럽고 다른 뜻이 없음을 알고, 비로소 나가 맞이하였다.

— 이정균, 「흥무왕연의」 —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공간적 배경을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복선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시키면서 서술하고 있다.
- ④ 요약적 진술을 활용하여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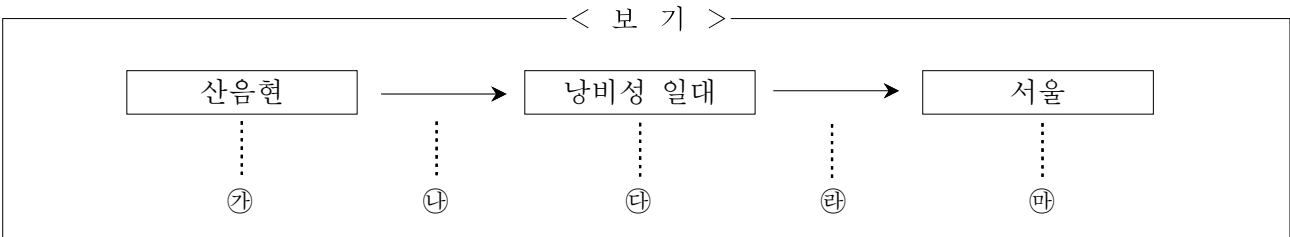
— < 보 기 > —

김유신 공(公)은 세상에 드문 인재이다. 또한 그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이 태종(太宗) 김춘추처럼 현명한 군주를 만났다. 왕은 그의 말과 계책을 따랐으며, 그가 사방을 공략하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다. (중략) 드디어 여러 역사를 참고하고 여러 설을 모아 「홍무왕연의」를 지었는데, 삼국의 충신, 열사, 산천, 성읍(城邑)을 모두 갖추어 서술되지 않은 것이 없다. 아울러, 이 책의 내용 중에는 허황되고 과장된 부분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체로 공의 가문을 칭송하는 가전(家傳)의 취지를 따른 것이지만, 만약 올곧은 선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경박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공을 특별히 흠양(欽仰)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책을 지어 오로지 칭찬할 따름이다.

- 이정균, 「홍무왕연의」 서문에서 -

- ① 월성공자와의 첫 만남을 극화한 장면은 김유신과 김춘추가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긴밀한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인명이나 지명, 군사적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여러 역사서를 참고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어.
- ③ 김유신의 꿈에 구형왕이 나타나 전세의 위급함을 알려주는 장면은 허황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가락국 왕실의 기운으로 대대로 명장이 나왔다는 서현의 말은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려는 가전의 취지와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김유신의 싸우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서술한 점은 올곧은 선비들로부터 경박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39. <보기>는 김유신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에서의 김유신의 행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수 년 동안 능을 모시면서 무예를 수련했다.
- ② ㉡: 기병 30명과 지경개, 원일원 두 장수를 대동했다.
- ③ ㉢: 고전하던 부친을 구해 내고 고구려군의 항복을 받았다.
- ④ ㉣: 자신의 전공을 왕에게 고하려고 하는 부친을 만류했다.
- ⑤ ㉤: 함께 개선한 군사들이 해산된 후에 고향으로 떠났다.

40. ㉦~㉨의 상황을 한자 성어로 표현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김서현의 처지는 ‘누란지세(累卵之勢)’라고 하겠군.
- ② ㉧: 고구려 장수 기숙은 ‘혼비백산(魂飛魄散)’하였겠군.
- ③ ㉨: 김유신은 ‘좌고우면(左顧右盼)’의 전술을 선택했군.
- ④ ㉣: 김서현의 마음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한 상태로군.
- ⑤ ㉤: 김춘추는 ‘삼고초려(三顧草廬)’와 같은 정성을 다했군.

관
망

관
망

관
망

관
망